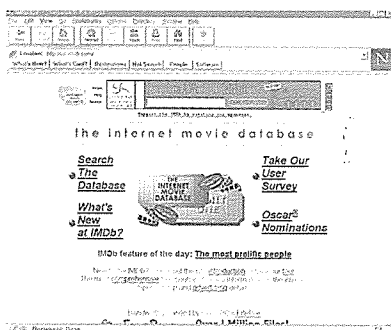




## 재미있는 영화관련 사이트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광적인 매니아들은 차치하고라도 도시의 바쁜 일과중에 짬짬이 생기는 여가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직장인들에게,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시간을 낸 주부들에게, 또 사랑을 속삭이는 젊은 연인들에게 영화는 흥미와 휴식, 그리고 때로는 진한 감동까지도 전해주는 좋은 친구이다.

인터넷 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정보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가장 쉽게는 야후(http://www.yahoo.com/)나 심마니(http://si-mmany.hnc.net/)의 Entertainment, Movie, 또는 취미 항목을 찾아보면 찾아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의 구실을 못하듯이 어떤 사이트가 체계적으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유용하다



고 생각되는 영화관련 사이트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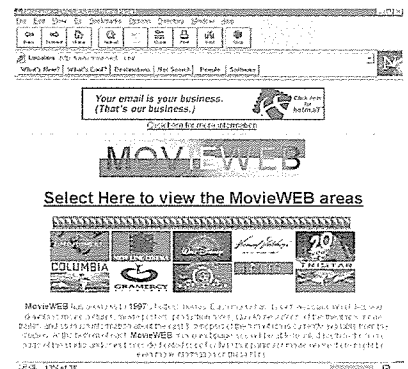
우선은 "The Internet Movie Database(http://www.imdb.com/)"를 생각할 수 있다. 이곳은 지금까지 나온 거의 모든 영화, TV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접속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맨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명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Celebweb(http://www.celebweb.com/)"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영화배우 뿐만 아니라 사회자,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 자체로도 재미있는 사이트이다.

"Search The Database"에서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목차와 탐색 기능을 통해 제공하는데 각 영화 별로 제작사를 비롯하여 배우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이할만한 점은 "Index"의 세부 메뉴에서는 "Best 250", "Bottom 100"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한 각종 통계데이터, 또는 강평 등도 제공한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재미있는 사진이나 줄거리 같은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Oscar Nomination에서는 최근의 오스카상 후보, 후보작 및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같은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영화 찾아보기(http://www.iWorld.net/~zeehoney/Korean-Movies/index.html)"라는 사이트가 생겼으니 들러볼만 하겠다. 영화 자체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Movieweb(http://www.movieweb.com/)에 들러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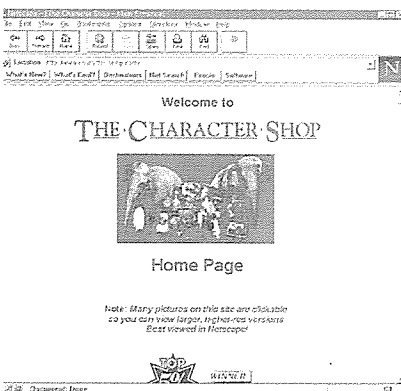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연도별로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영화에 대한 줄거리, 약간의 사진을 제공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 미개봉된 영화, 심지어는 6~7개월 후에나 개봉할 영화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 영화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중에 배우나 다른 스태프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해당 배우나 스태프가 관련된 영화들을 검색할 수도 있다.

하단에 있는 "Links to the

Movie Studio Websites & other Movie Resources”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Universal Studio, Columbia와 같은 우수 영화사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며 그리 보기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여론 조사와 그 결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와 역대 Box Office 상위 랭커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제공된다.

“The Character Shop (http://www.charactershop.com/)”도 재미있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영화, TV 드라마, 또는 광고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자신들이 제작한 캐릭터들의 제작 과정과 몇몇 사진들을 제공하고 FX와 관련된 용어집과 FAQ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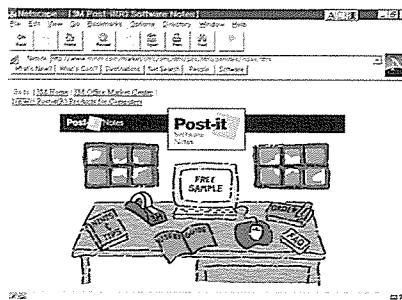


기술적인 설명은 없지만 특수 효과와 관련된 링크들을 제공하는 국내 사이트도 있는데 엘림 넷의 “SF Pictures 사진자료 창고 (http://www.elim.net/~sfxman/pic.htm)”가 그곳이다.

이 밖에도 오스카 상을 주는 기관인 AMPAS의 홈 페이지인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http://www.ampas.org/)”,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의 영화 전용 공간인 “MicroSoft Cinemania(http://Cinemania.msn.com/Cinemania/Home.asp)” 등도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인터넷 상의 이러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영화를 더 깊이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포스트잇’



하루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수십 장씩 쏟아지는 메모가 버겁기만 하다. 중요한 메모를 적어놓고 이를 잃어버리거나 약속시간이 이미 지난 후에 메모지를 전달받고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종이 메모장 대신 디지털 포스트잇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화-약속-업무기록-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아이디어 등을 컴퓨터에 메모한 후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볼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

현재 천리안매직콜, 하이텔, 나

우누리, 유니텔 등 공개자료실을 통해 미국 3M사의 「포스트잇 노트」, 「포스트잇 3.5」, 「메모지 1.1」 등 메모장 프로그램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디지털 포스트잇은 많은 내용의 정보는 저장하지 못하지만 매번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고 정보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과 다르다. 「포스트잇 노트」 소프트웨어는 흔히 사용되는 종이 포스트잇과 무척 닮았다. 포스트잇 종이를 한장 찢어 내용을 메모하듯 마우스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모니터에 조그마한 메모장이 나타나고 여기에 키보드로 필요한 내용을 적는 식이다.

엄지손톱 2배 크기의 그림메뉴를 누를 때마다 메모용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메모지는 다시 메모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의 메모판을 만든 후 각 메모판별로 메모지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

메모판은 각기 다른 색깔로 만들 수 있으며 메모지도 노랑—옅은 하늘—보라 등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노랑 메모지는 약속, 하늘색은 전화번호, 흰색은 업무 등으로 세분화해 메모할 수 있다.

또 메모내용을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파워포인트」 등 브리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메모를 읽을 수도 있다. 알람기능을 이용하면, 약속시간이 됐을 때 음악으로

이를 알려준다. 이밖에 「찾기」 기능이 있어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적힌 메모지를 찾아준다.

현재 PC통신 공개자료실에 있는 포스트잇은 30일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셰어웨어. 3M사 홈페이지(<http://www.mmm.com>)를 통해 셰어웨어와 정식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값 26.57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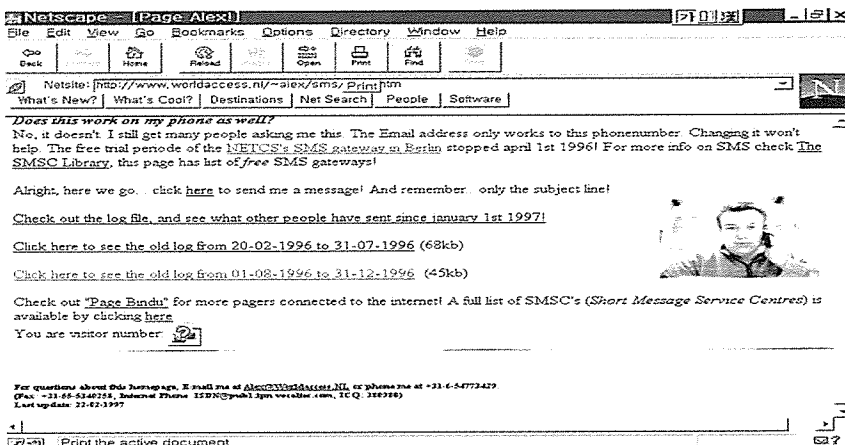
3M 제품보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포스트잇 프로그램으로도 간단한 메모를 기록할 수 있다.

무료로 배포중인 「돋보기 포스트잇」 프로그램은 최대 4장의 메모를 적을 수 있으며 각각 메모에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사용자가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메모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PC통신 나우누리 공개자료실에 접속한 후 「59120」번 「post35b」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 「메직노트 2.0」 「포스트패드」 「메모지1.1」 등 다양한 메모장 프로그램을 PC통신 공개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이용, 휴대전화로 메시지 전송 (print screen)

이동전화를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SMS (Short Message Service)는 편리하긴 한데 SMS기능이 내장된 별도의 전화기를 구입해야 하고 단말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 하지



만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휴대폰과 인터넷과의 만남이 바로 해결방법이다.

홍콩에 살고있는 필립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 갑자기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 알렉스 (Alex)가 그리워졌다. 딱히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안부를 전하고 싶다. 접속해 있는 인터넷을 해제하고 국제전화를 하기는 번거롭고 문득 지난번 알렉스가 자신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짧은 메시지 정도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알렉스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억해낸 필립, 그리움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알렉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를 연결해 인터넷에 입력된 메시지를 이동전 입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홈페이지 방문자가 페이지의 하단에 마련된 버튼을 클릭한 후 메시지를 입력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되어 액정표시장치 (LCD) 스크린에 그 메시지가 나

타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SMS를 지원하는 별도의 단말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해 SMS를 이용할 수 있다.

알렉스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NETCS의 SMS게이트웨이로 흘러가고 이동전화시스템은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한 다음 네덜란드에 있는 알렉스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알렉스는 이 페이지에 친절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들을 예제로 실어 처음으로 SMS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했다.

또한 SMS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SMS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해 놓은 「SMS FAQ」란과도 연결해 놓았다. 알렉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http://www.worldaccess.nl/~alex/sms/beep.htm>에 접속하면 된다.

### 퀄컴사의 휴대전화에서 작동하는 웹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메일 프로그램인 유도라(eudora)의 개발사인 퀄컴은 언와이어드 플래닛의 'UP.Link'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동시에 이 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입했다. 퀄컴은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다중접속) 디지털 전화기를 비롯한 무선통신 제품에 언와이어드 플래닛의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다.

언와이어드 플래닛의 업링크 기술은 '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 (HDML)' 를 이용, 휴대형 전화기에서 작동하는 웹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업링크를 사용하면 전자우편, 증권정보, 주문형 팩스, 기업 전화 번호부 서비스 등을 셀룰러 전화

와 양방향 호출 서비스에 추가할 수 있다.

### 피부에 디지털정보 유도한 후 전자기장 이용 상대방에 전달



악수나 키스 같은 피부접촉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이 개발됐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최근 IBM 연구진이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정보교환을 가능케 해주는 개인영역네트워크(Public Access Network)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PAN은 전자기장을 이용, 디지털 데이터를 사람 피부로 유도했다가 다른 사람과 신체를 접촉할 때 이 데이터를 상대방 PAN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크기의 PAN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각종 정보를 제3자가 전혀 모르게 단순히 악수만으로 상대방과 교환한 뒤 집에 돌아와 PAN에 입력된 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보관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PAN을 이용할 경우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때 수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넬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전화나 안전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의 개폐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문 손잡이와의 피부접촉만으로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전화기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수화기를 잡는 것만으로 누가 어떤 신용카드로 어느 전화회사를 통해 통화하려는지 전화기에 알릴 수 있다.

현재 개발된 PAN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초당 2천4백바이트이지만, 연구자들은 피부를 통한 자료 전달이 이론적으로 초당 40만바이트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함의 교환은 현재 개발된 수준에서도 스치는 듯한 악수로 가능하다.

PAN을 사용할 때 피부를 통해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기량은 인체 속의 자연 전기량보다 훨씬 적은 10억분의 1암페어에 불과하고, 시스템 작동 중의 주파수도 1MHz보다 낮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http://www.svi.org/PROJECTS/PAN/index.html>

### 한국디지털사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미아터'

한국디지털사는 퍼스널 워크스



메이션 '미아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출시에 들어갔다.

인텔 펜티엄 프로칩을 장착한 윈도우NT 전용 워크스테이션 카와이에 이어 발표된 미아타는 시스템에 탑재된 마이크로프로세서로는 가장 빠른 클럭스피드 433MHz와 500MHz의 알파칩을 탑재하고 있어 고성능의 인텔 NT 및 알파 NT솔루션을 동시에 공급한다.

미아타는 또 CAD/CAM/CAE 및 각종 애니메이션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가능한 CPU 파워와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며, 정수연산과 부동소수점에서 각각 15PECint95, 20.4SPECfp95 등 탁월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미아타는 특히 디지털 알파칩 가격을 하향 조정한 이후 첫선을 보인 제품으로 가격대도 기존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됐다. 현재까지 디지털이 발표한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은 기본사양 구성이 5백만원에서 8백만원대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미아타는 그래픽 사양과 하

드드라이브를 제외하고 메모리 64MB일 경우 8백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그밖에 그래픽 옵션이 포함될 경우 기본 1천5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한다.

미아타 500a와 433a는 ECC지원 기술을 통해 32MB에서 384MB까지의 SDRAM을 지원하며, 2MB Cache, 128MB RAM, Ultrawide SCSI디스크 컨트롤러, 2.1GB하드디스크, 8배속 EIDE CD-ROM드라이브, 3.5인치 플로피, PowerStrom그래픽, 통합형 10BaseT/10Base2 이더넷 및 통합형 16비트 오디오 등을 포함한 가격은 2천만원 미만이다.

### 애플사의 한글 랭귀지 키트 KLK



지난해 8월부터 출시가 예고되었던 일명 'KLK'라고 불리우는 코리안랭귀지 키트가 드디어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알려진 대로 KLK는 하나의 맥

OS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애플의 월드스크립트 기술의 결정체로써 사용자의 매킨토시에 영문 맥OS가 인스톨되어 있고 사용자가 한글과 일본어를 동시에 쓰고 싶다면 단지 입력기와 서체 그리고 랭귀지 키트 관련 파일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3개 국어의 자유구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KLK의 출현은 맥클론 진영이나 국외에서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판매 대행해 주는 비정식 채널에서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맥클론을 판매해 온 사이버맥에서는 기존에 시스템을 구입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맥클론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이 키트는 공식적으로 맥클론 공급업체인 사이버맥과 엘렉스의 소프트타임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량수급과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양사 모두 실제 판매는 올 12월 하순이나 내년 1월경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맥측은 일단 공급되는 초기물량을 번들과 기존 사용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격은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15~17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KLK를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의 메일오더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는데 'Cyberian Outpost' 등에서는 약 1백37.95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①7